

해외 어학 연수 최종 보고서

| | | | |
|---------------|----------------|--------|------------------------|
| 연수기관 (국가명) | 괌 대학교 (미국) | 연수 기간 | 2024.06.30.-2024.07.20 |
| 학과 | 간호학과 | 학번 | 2148014 |
| 이름 | 이도원 | 이메일 주소 | ehdnjs1430@naver.com |

학업 관련 (연수 기관 설명, 수업방식 및 구성, 해당 기관 서비스, 해당 기관 특징 및 장·단점 등)

괌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녔다. 수업시간은 오전 9:00-12:00, 13:30-15:00로 2부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첫 등교날에는 레벨테스트만 하고 끝이 났다. 레벨 테스트는 현지 선생님과 프리토킹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약 3-5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수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게임, 미션등의 활동적인 것부터 작문, 독해 수업, 그리고 개인영어발표 등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은 선생님마다 진행 스타일도 수업 내용도 난이도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나는 자유롭고 편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르원했는데 내 클래스는 발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래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현지 친구들과 짝궁을 맺어주거나 모임을 정기적으로 주최해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생각이 있었다. 특히 비치데이에서는 현지 친구들과 활동을 한다해서 기대했었는데, 나뭇잎으로 바람개비 만들기 코코넛 짜르는 것 보기 등의 활동이어서 영어 레크레이션과 영어 단체 게임, 단체 스포츠등을 진행한 나로써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생활 관련(의, 식, 주) 연수 국가의 특징, 주의할 점, 본인의 경험담

의) 옷은 무조건 반팔+가디건의 세트를 권한다. 실외는 매우 덥고 습하며 실내의 강한 에어컨으로 몸서리 치게 춥다. 입고 벗기 쉬운 가디건을 챙기는 것을 정말 권하는 바이다. 자주 내리는 소나기로 우산도 필수이다.

식) 괌의 주된 현지식은 레드 라이스와 닭 구이가 주식인데, 사실 내 입맛은 물론 많은 친구들 입맛에 잘 안 맞았던 메뉴이듯하다. 레드라이스는 간이 약했으며 닭구이는 닭이 안익거나, 딱딱하거나, 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라면 등의 간편식을 챙겨가는것도 추천한다. 또한 괌의 대표적인 현지식인 로코모코는 스프소프에 함박스테이크와 밥을 같이 먹는 음식인데 이 음식도 한번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 샤워실이 2개여서 불편할 것 같다는 예상과 달리 크게 기다리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아마 모두의 배려가 있었기에 큰 문제없이 모두가 잘 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초반에 샤워실 배수구 머리카락 문제로 약간의 이슈가 있었지만 금방 다들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단체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괌에는 야생 닭, 야생 들개, 뱀, 도마뱀, 고양이, 등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자주 매일!!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할 후배에게 미리 알고 가면 좋을 정보(준비 절차, 준비물, 비상약, 추천정보, 꿀팁)

괌의 날씨 특성상 소나기가 정말 자주 내렸다. 가벼운 이슬비부터 강한 장대비까지 예상할 수 없으니 작은 우산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햇빛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자주 덧바르는 것을 추천한다. 안그러면 살이 타면서 벗겨지기까지 하루도 안걸린다.또한 기숙사에 24시간 틀어져 있는 에어컨 특성 상 냉방병이나 감기에 걸리기가 정말 쉽기에 감기약과 상비약을 두둑히 챙겨갈 것을 권한다. 에어컨은 항상 화씨 70도로 맞춰져있기에 담요나 이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도 모르게 벌레에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벌레에 물리든 소양증과 발진이 한국 벌레들 보다 심하게 올라와서 버물리 등의 약을 챙기는 것도 추천한다.

그리고 관광으로는 투몬 비치와 이파오 해변, GPO 등이 있는데 GPO는 괌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기념품, 옷, 간식, 도서 등의 구매가 가능하고, 영화관도 있어 영화관람도 가능하다. 나는 특히 서점을 재미있게 구경하고 이용했다. 영어원서 및 디즈니 도서를 읽는 재미가 쏠쏠했다.

※ 연수 기간 동안 찍은 사진 첨부 및 기타 의견 작성

| | |
|--|--|
| <p>기숙사/ 호텔 등</p> | <p>학교 캠퍼스/ 시설</p> |
|  |  |
| <p>텍사스 친구와 사진</p> | <p>문화 체험 (카약 하우스)</p> |
|  |  |
| <p>돌핀투어 (50달러 개인지불)</p> | <p>현지 점심</p> |
|  |  |

연수 기간 동안 느낀 장·단점 /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아쉬웠던점은 현지 학생들은 방학기간이라 현지학생들의 수는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것이다. 다양한 현지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하고 싶었는데 현지 학생들은 기숙사 RA, EAP 보조스텝 뿐이어서 내가 직접 열심히 찾아 다녀야 겨우 몇몇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느낌이었다. 특히 같은 수업 클래스는 100% 한국인이어서 뭔가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나왔기 때문에 100% 영어를 극대화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 또한 조금 아쉬움에 남는다. 그리고 기숙사에 살아서 학교는 가까웠지만 학교 주변에는 정말 인프라가 약해서 학교 주변은 제한적이고 시내까지 나가는 것은 택시비 등으로 이동이 부담이 되는게 아쉬웠다.

그리고 석식이 가격에 비해 너무 퀄리티가 낮아서 아쉬웠다. 전반적으로 미국국가에서의 한식이 비싸다는 것을 감안하고 봤을때는 정말 최악이었을 때는 무조림, 콩나물무침, 김치, 흰밥의 조합메뉴였다. 그리고 석식은 15일로 계산을 하고 학교 활동, 독립기념일 휴일 등으로 석식을 13번만 먹었는데 차액 환불이 아니라 그게 15일로 계산된 가격과 그게 원래 총 가격이였다는 대답이 조금 아쉬웠다. 사전에 가격과 조건 공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해주었으면 더 이해가 좋았을 듯 싶다.